하나금융그룹

여러 은행을
1로
통일하다

여러 은행 계좌를 앱 하나로 관리하는 오픈뱅킹 시대
조회, 이체는 물론, 예금, 적금까지-
KEB하나은행 하나원큐 앱으로 간편하게 누리세요

하나원큐 오픈뱅킹

KEB하나은행 하나원큐 오픈뱅킹

• 타행 계좌 잔액 조회, 여러 앱 필요 없이 원큐에! • 타행 계좌 자금 이체, 수수료 없이 원큐에!

하나원큐 바로가기 오픈뱅킹 알아보기

KEB하나은행
기술금융 실적평가 1위
19년 상반기 대형은행 부문, 금융위원회

※ 금융결제원의 오픈뱅킹 참가은행이 아닌 경우, 본 서비스의 등록 및 이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설명서 및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99-1111)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광고-5195호(2019.11.15)/CC브랜드191112-0099

주엽역지점 Tel. 031-913-1111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KEB 하나은행

제 100 호 겨울
2019.12~2020.02

www.kyywca.or.kr

고양 YWCA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100

마음을 나누는 묵상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기획기사
고양YWCA 30주년, 100호 계간지 특집

활동보고
고양YWCA 30주년 기념행사

고양 YWCA 소식지 100호 축하기념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

고양 YWCA

목차

03 **마음을 나누는 묵상**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 **김경환**

04 **기획기사** 고양YWCA 30주년, 100호 계간지 특집 | **남궁혜경**

07 **기획기사** 가족사랑상담소 20주년기념포럼 | **이혜경**

08 **활동보고** 고양YWCA 30주년 기념행사 | **남궁혜경**

09 **활동보고** 제19회 나눔바자회 | **박선영**

10 **활동보고** 키다리학교-스포트라이트 투 라돈 | **문정은**

11 **지역연대활동** 금정굴-인권과 평화의 여정 | **이현옥**

12 **신앙칼럼**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성서이야기 | **강희수**

14 **부속시설이야기** 문촌9사회복지관 어린이집 | **황영주**

15 **생활법률** | **김영은**

16 **문화공간** 책-'비혼주의자 마리아' 소개 | **남오성**

17 **고양YWCA NEWS**

20 **2019년 8월 ~ 10월 후원자 명단**

22 **돌봄과 살림**

23 **문촌9복지관 어린이집원아모집 · 정기총회**

24 **하나은행**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0호 2019.12~2020.02

2019년 12월 18일 발행

발행 고양YWCA

발행인 윤정애 | **편집인** 이경애

홍보출판위원회 황혜숙 · 최향숙 · 윤선영

편집 박선영 · 남궁혜경

발행처 고양YWCA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5F

전화 031)919-4040 | **팩스** 031)913-4042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신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얼마 전 돼지 열병으로 십 수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만
1억의 가축들이 묻혀졌는데
매해 500만 마리의 가축들이
집단 죽음을 당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생명인데 말입니다.
몇 해 전 브루셀라라는 병에 걸린 소들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의사가 혈압 주사를 놓았답니다.
보통의 경우 30초면 그 자리에서 쓰러진답니다.
그런데 아직 젖을 먹이고 있던 어미 소가
수의사 앞으로 끌려왔는데
여전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송아지가
젖을 빨고 있더라는 거죠.
주사를 놓은 지 30초가 지나도
다른 어미 소들처럼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4분이 지나고 송아지가 젖을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떼자마자 어미 소가 쓰러집니다.
이 친구들 역시도 강한 모성애를 지니고 있고
자식을 살리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똑같은 생명이었습니다.
공장식 축산문화, 대량생산, 과도한 육식문화가 낳은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일의 공범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더구나 우리를 살리는 생명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게 하는 문화는 천벌을 받을 짓들입니다.

몇 해 동안 텃밭을 가꾸면서 알게 된 귀한 깨달음은
흙에는 인류 역사를 살다간 모든 생명이 녹아있다는 사실과
결국 그 생명의 흙이 온갖 나무와 꽃과 생명의 먹거리를
풍성히 내며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겨울로 가는 문턱에 서서
생명의 씨앗이 되기 위해
낮은 곳으로 몸을 낮추는 자연 안에서 삶의 거룩함을 봅니다.
자신을 살리는 또 다른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자연에게서 생명의 길을
성찰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는 모든 것들이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소박하게 먹고 풍요롭게 감사하며
신실하게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김경환
동녘교회 담임목사

고양YWCA 30주년, 소식지 100호를 발간하며

남궁혜경
국장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양YWCA는 이번 호로 100호 소식지를 발간하였다.
고양YWCA 활동을 회원들과 고양시민들에게 홍보하고자 1996년 12월 25일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창간호 발행 후 정간되었던 소식지는 1999년 분기별로 다시 발행되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고양YWCA 및 각 부속시설의 활동을 충실하게 담아냈으며, 회원들이 고양YWCA 운동에 동참하면서 느꼈던 다양한 목소리를 실어 운동의 내용과 결과를 공유하였다. 또한 전문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글을 기고받아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대응하고자 하였다.
오랜기간 끊이지 않고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안에는 보이지 않는 얼굴들의 숨은 수고가 담겨있다.
100호의 소식지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안에는 많은 고민을 하고 의견을 주었던 홍보출판위원회의 역할(지난 호를 평가하고 새로운 호의 내용을 설계)이 매우 컸다.
100호의 소식지가 나오기까지 기꺼이 숨은 수고를 감당해주었던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고양YWCA 소식지의 역사는 고양YWCA의 역사이며, 고양시 안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삶의 역사이기도 하다.
향후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 여성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사회적 이슈에 대한 YWCA의 성찰... 이 모든 것 안에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질 수 있도록, 고양YWCA의 역사가 온전히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창간호

1996.12.25. 발행

2호~

1999.5.1. 계간 발행

28호~

2005. 격월 발행

70호~

2012. 70호부터 책자형태, 계간발행

90호~

2017.90호부터 전면칼러, 계간 발행

최지현
전 고양가족사랑상담소 소장
현 서울가정법원 전문조사관

빛을 더해가는 역할을 기대하며

원고 청탁을 받고 집에 있는 고양YWCA 신문들을 읽어 보다가 고양Y에서 16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입사한 지 2개월도 안되어 아무 것도 모르는, 그리고 정규직도 아닌 인턴인 나를 어떻게 믿고 고양YWCA 신문을 맡기셨을까?'하는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무 것도 모르던 나는 어떤 마음으로 고양Y 신문을 만들었지?'라는 생각으로 이어져 홍보출판부 간사시절이 떠올랐다.
물론 고양Y에서 홍보출판부 간사만 했던 적은 없다. 사회문제부와 홍보출판부, 회원개발부와 홍보출판부… 이렇듯 당시 '고양Y 신문 발행'이 주업무였던 홍보출판부는 깍두기(?)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다 보니 고양Y 신문은 일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발행일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았고, 2006년경 회원개발부 업무가 증가하여 고양Y 신문 담당자를 변경할 때도 속상했던 이유가 총장님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담당자인 나는 고양Y 신문이 깍두기 같은 느낌을 받아서 "일이 많아도 고양Y 신문은 그냥 계속하고 싶다"고 했던 기억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 담당자만의 그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발행일에 맞춰 실수없이 고양Y 신문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나, 신문을 만들면서 그 마음도 커졌고, 2009년 『고양YWCA 20년사』를 쓰면서 고양Y 신문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던 것 같다. 고양Y 신문이 없던 창립 이후 1998년과 달리 1999년부터 2009년까지는 고양Y 신문이 그래도 지난 10년을 잘 담아와서 『고양YWCA 20년사』를 쓰기가 훨씬 수월했다. 분기별로 발행됐지만 고양Y 신문은 '高陽Y實錄'같은 느낌이었다.
『고양YWCA 20년사』 축사에서 강교자 전 한국YWCA연합회 회장님께서 "역사는 간직함으로 그 빛을 더한다."고 하셨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쉽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 중요함을 잊을 때도 있지만, 고양Y 신문이 회원들과 소통하면서 實錄처럼 고양Y의 역사를 묵묵하게 간직해 가기를 그리고 간직함으로 그 빛이 더해져 가기를 기대해 본다.

고양Y 신문을 만들던 시절을 떠올리느라 축하 인사를 잊어버릴 뻔했네요. 고양Y 신문을 만들었던 담당자로서 100호 발행을 보는 기분을 정말 잘 전하고 싶은데… 너무 잘 자란 아이를 보는 느낌이라고 하면 설명이 될까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고양Y 신문 1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큰 힘은 안되겠지만, 고양Y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응원하고 있음을 기억해주세요~

최향숙
고양YWCA홍보출판위원회 위원
청소년카페 깔깔깔 관장

기록의 20년을 축하하며

역사적으로 기록의 대상은 남성이었다.
'history'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들의 이야기가 역사다. 하지만 인류의 절반, 그 이상의 역할을 했던 여성들의 역사는 거의 없다. 왜 기록되지 못했을까?
여성의 삶, 여성의 일은 중요시 되지 않은 경향 때문이다. 밥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품앗이를 하고 일을 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소소한 일상이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일상이 모여서 인간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 일상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도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고양Y의 신문은 소소한 일상을 여성의 일상을 역사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한다. 지금보면 촌스럽기 그지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가 이런 일도 했네' 하며 되새기게 하는 기사들, 그때는 참 미숙했지만 그 미숙함을 다듬어서 만들어낸 사업들이 보인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지나쳤던 수많은 사건과 일상들이 기록이 되어 역사로 엮어진 현장이 아닐까 싶다. 여성의 삶을 역사로 만드는 일, 일상을 특별한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힘, 그 일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다.
그동안 신문에 담아졌던 수많은 이름들, 우리 이웃들의 이름들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앞으로도 쭉 기록하는 일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영아
고양신문 발행인

30년의 성장, 시민사회의 숲을 이루다

30년.
갓 태어난 아가가 서른살 청년으로 자란 시간, 인구 18만의 고양시가 100만의 도시로 성장한 시간, 고양YWCA의 역사가 흐른 시간입니다. 고양YWCA 30년의 매듭과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양YWCA는 고양의 첫 여성시민단체로 출범해 전국 지역시민단체의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더 진보적인 여성단체도 있었고, 더 큰 시민단체도 있었지만 고양YWCA처럼 꾸준하게 성장한 단체는 없었습니다. 마치 샘물이 흘러 강물이 되고, 바닷물을 이루듯 30년을 평화롭게 흐르며 성장했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없을 수는 없었겠지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갈등은 어떻게든 이겨낼 궁리를 하면서 성장하는 비옥한 텃밭과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아마도 고양YWCA의 30년 역사는 갈등의 역사였고, 이 갈등을 성실하게 마주하고 넘어선 대화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존경심이 올라옵니다.
고양YWCA는 늘 합리적이면서 진보적인, 고유의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색채가 고양에서 기장 큰 시민단체로 성장한 힘일 것입니다. 소나기가 아니라 봄비처럼 잔잔하게 지역사회를 적셔주고, 새로운 시민사회의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고양신문도 올해 30주년을 맞았습니다. 마치 30년지기 친구처럼 든든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역시대가 열립니다. 어떤 고양을 만들어 갈지, 나와 우리는 어떤 고양에서 살고 싶은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고양을 남겨주어야 하는지, 설레는 마음으로 밑그림을 그려보았으면 합니다.
고양YWCA가 상상하면, 현실이 될 겁니다.
고양신문도 함께 하겠습니다.

심지선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

고양YWCA의 30주년과 계간지 1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고 ▶ 고양에서 열정적이고 멋진 여성이 모인 곳이 어딜까?
양 ▶ 양쪽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YWCA ▶ YWCA였네요.

지난 30년간 안전하고 폭력없는 사회,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오신 고양YWCA(이하 Y)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전하며,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양파주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Y와 함께 공감네트워크, 젠더포럼, 여성영화제, 3·8여성대회,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 제안 등을 하면서 지역 운동의 동반자로서 항상 고마웠고, 든든했습니다.
지역엔 여전히 인권, 차별, 안전, 폭력, 환경과 같은 단어와 함께 거론되는 문제들이,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Y는 이런 문제들에 주목하면서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그 행보에 민우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멋지고 활기찬, 열정적이며 개혁적인 당신들이 있는, 고양YWCA를 항상 응원합니다.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 토론회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가 나서다

이혜경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장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에서는 개소 2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23일(수) 일산동구청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혜원 박사는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신고 건수 및 검거 인원이 모두 증가 추세"라면서 "가정 폭력은 개인이나 가족 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해결이 중요한 범죄로 예방과 재발 방지가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혜경 고양YWCA 가족사랑상담소장, 김해련 고양시의원, 임창영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박귀영 여성의쉼터 소장, 조영곤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고양시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실태와 자립지원 현황, 경찰의 가정폭력대응, 법령 및 처리 절차 등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김경희 경기도의원은 "상담 건수가 1년에 2천 여건에 달하는 고양시의 가정폭력은 각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 해결될 문제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가정폭력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 가정폭력 실태와 피해여성을 위해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함께 걸어온 30년, 함께 만들 미래, 고양YWCA 30주년

남궁혜경
국장

고양YWCA 창립 30주년 기념예배·기념식

고양YWCA는 10월 31일(수) 일산서구청 강당에서 1800여명의 회원,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기념예배에는 진희근 목사(승리교회 위임목사)의 '은혜의 유통자'란 설교와 고양YWCA합창단의 특송이 있었다.

기념식은 내빈소개, 윤정애 회장의 기념사,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격려사, 이재준 고양시장 •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의 축사로 이어졌으며, 고양YWCA 활동을 후원하고 지원한 일산농협, 고양시의사회, 승리교회, 주날개그늘교회, 최규식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김재신 공인회계사에게 감사패를, 고양YWCA의 발전과 성장에 큰 기여를 한 허영미 • 황혜숙 • 윤윤희 • 김춘애 증경회장과 김애경 • 최영임 위원, 고양YWCA합창단에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고양YWCA 30년의 역사를 담은 영상 상영, 남성 3중창 수온의 축하공연 뒤 참가자들과 함께 30주년을 축하한 후 다과회를 가졌다.

고양YWCA 30년은 수많은 회원,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열정, 지역사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다.

30년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딛고 YWCA의 역사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고, 소외된 자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한 고양YWCA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지금이 있기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의 손으로 실천하는 작은사랑 제19회 나눔행사

박선영
과장

매년 10월 셋째 주를 기다리는 지역주민들이 있다. 일주일 전부터 강선공원에 바자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리고 오고가는 지역주민들은 사무실에 문의전화를 한다. 올해도 작년에 판매했던 물품들이 들어오는지 새로운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10월 18일(금) 오전7시 드디어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따라 강선공원에 15개동의 천막이 설치되고 9시20분 바자위원장의 기도를 시작으로 봉사자와 실무자가 한마음이 되어 분주하게 물품들을 진열하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자원활동가들이 바자회전날 늦게까지 온갖 과일과 양념으로 버무린 갓김치와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직접 반죽하고 고소하게 구워낸 해물파전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각지부마다 특색 있는 물품과 판매 전략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주민들에게 고양YWCA의 운동을 알리고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며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후원금과 물품을 지원해 주신 기업과 단체, 따뜻한 마음으로 선한 뜻에 동참해 주신 많은 후원자와 봉사자들에게 감사한 하루였다.

우리의 손으로 실천하는 작은 사랑이 우리 지역과 마을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행사에서 나온 수익금은 여성근로자들을 위한 노무상담과 활동 운영비로 귀하게 사용되었다.

작은사랑 나눔행사에 함께해 주신 착한 기업· 회원님! 참 고맙습니다!!

고양낙농치즈테마체험장 / 농협하나로유통센터 / 다원물산/ 뚜레반 / 뚜레쥬르원당점 / 롯데아울렛고양터미널점 / 바른손 / 보성환경 / 빵굽는작은마을 주엽점 / 서부보육사 / 손두부체험카페 / 씨디에프텍스타일 / 아가월드 / 올레떡집/ (주)아이비전 / 쥬얼파크 / 코이노니아 / 팔피엠 / 한국화훼농협 / 형제식품 / 고양YWCA이사· 위원· 회원

‘키우자, Y다운 리더!’ 키다리학교

스포트라이트 투 라돈

문정은
간사

? **‘키다리학교’**란 ‘키우자, Y다운 리더!’의 줄임말로 YWCA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토요대안학교이다.

2019년 키다리학교는 지난 3월에서 11월까지 격주로 진행되었고 11/16(토) 수료식을 가졌다. 대진침대 사건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생활방사능 ‘라돈’을 주제로 하여 청소년이용시설 및 공공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생활방사능과 저감방법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7명의 중 ·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키다리학교는 방사능에 취약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만화카페, 도서관, 코인노래방, 보드게임카페 등을 모니터링하여 라돈수치를 확인하였다. 또한 강선공원, 주엽역 캠페인을 통하여 고양시민들에게 생활방사능 라돈을 알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였다.

“저는 마지막에 캠페인 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이용시설에 가서 얻은 자료들이나 강의로 배운 것들을 직접 정리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리플렛을 나눠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라돈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이나 알고 있어도 대처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저희 활동을 통해 알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안곡중 권구영***

“라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라돈은 어디에서나 나올 수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저감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라돈으로부터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고양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엽고 유현성***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라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어 좋았습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서 여러 추억이 되었습니다. 캠페인 중에 무시하거나 우리의 목적, 계획대로 되지 않은 적도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격려해주어 더욱 힘을 얻고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어 뜻 깊었고 재미있었습니다.” ***주엽고 한송이***

고양시 금정굴에서 만나는 인권과 평화의 여정

이현옥
금정굴 인권평화재단 사무국장

제2차세계대전에서 벌어진 대량의 민간인학살은 전 세계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UN을 탄생시켰으며, 인권에 대한 세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6.25전쟁이 나면서 또 다시 대량의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습니다.

1950년 10월 폐광이었던 금정굴에서 고양경찰서가 인민군 점령기 부역했다고 의심한 주민들을 재판없이 불법처형했습니다. 가족들이 잡혀왔고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증거도 필요없었습니다. 이는 최악의 인권침해로 “인도에 반한 범죄” 또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자,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가만 있으라는 거짓방송을 하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한강다리를 폭파하였습니다.

북쪽과 가까운 지리에 위치한 고양은 피난 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전쟁이 난지 3일만에 인민군이 점령하였습니다. 3개월 뒤 서울이 수복되고, 고양도 미해병들과 후퇴했던 경찰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치안 회복이였지만, 주민들의 안전은 뒤로 한 채, 인민군점령기에 살아남은 주민들을 잡아가고, 고문하고 학살하였습니다.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했지만,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43년간 유족들은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1993년 민주화에 힘입어 숨죽어 지내던 유족들은 유족회를 결성하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1995년 9월 수직굴에서 153구의 유골과 8백여종의 유품이 발굴되었습니다.

고양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은 2013년 국가배상금의 일부로 금정굴 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금정굴인권평화 재단은 한국전쟁기간 억울하게 집단희생당한 민간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이러한 민족적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사업과 남북분단의 아픔을 극복하여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정굴은 한국전쟁민간인 집단희생지로 근현대 민족의 아픔을 딛고, 전국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인권과 평화의 상징의 장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보는 성서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네 여성

강희수
서울신학대 교수

12월이 되면 교회력으로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게 된다. 대림절 기간 동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4주 전 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운다. 교회강단에는 네 개의 촛대를 세우고 한 주에 하나씩 촛불을 켜게 된다. 한편, 거리에도 반짝이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 상점에서는 캐롤송이 흘러나오므로 사람들의 마음은 설레인다. 교회에 다니든 안다니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세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기사는 신약성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성서를 읽고 싶은 마음에 책을 펼치는 순간 '낳고...낳고'가 나오므로 첫 장 부터 인내심을 갖고 족보를 읽어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되풀이 되는 단어들을 헤쳐나가다 보면 성서의 다른 부분의 기록방식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성서에 마태복음 1장만큼 여러 명의 여성의 이름이 쓰인 곳이 없다는 것이다. 어찌하여 예수의 탄생을 말하기 위해 차별화된 글쓰기를 했을까? 이 수상한 족보에 담긴 뜻을 깨닫게 된다면 마태복음 1장은 결코 자장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그러나 지극히 정상인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적 자기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곳곳에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보여지기도 한다. 그 예가 책의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이다.

족보는 무엇인가?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여기는 대표적인 증거물이다. 예수는 아브라함으로 부터 14대, 다윗으로부터 14대손이다. 족보에는 순수혈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름들이 나열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아도 여성의 이름이 올라있는 경우는 소위 명확하게 이름을 거론하여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가문을 빛낸 여인이라고 칭함을 받아야만 기록될 수 있었다. 그런데 예수의 족보는 이런 상식을 넘어선다. 예수의 족보에 오른 네 명의 여성들의 면면이 너무도 비정상적이기 때문이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창 37장)

다말은 유다의 첫째 아들의 아내이다. 그런데 다말의 남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일찍 죽었다. 이후 다말은 형사취수제(신25:5-10)를 따라 시동생과 결혼하였지만 그 역시 죽었다. 그러자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에게 세째 아들까지 주었다가 또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에 남편을 잃은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내어져 살아가는 일은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여성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고 살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다말은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길가의 여인으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한 후 증표를 받아내었다. 다말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였기에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위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마침내 다말은 유다와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리고 다말의 이름은 예수의 족보에 오른 첫 번째 여성이 되었다. 비록 다말이 형사취수제를 통해 자손을 얻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은 유다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기4장)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 모압 지방으로 가서 가족들과 살았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게 되었다. 얼마 후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며느리들에게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하지만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고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므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다. 그 후 룻은 죽은 남편의 먼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다. 모압 출신인 이방여인 룻이 순수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선택된 백성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 그가 이방인이라고 하여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또한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삼하 11, 12장)

우리야의 아내는 권력자인 다윗 임금에게 성폭력 당한 여성이다. 우리야의 아내에게도 이름은 있다. 밧세바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기자는 '밧세바'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 왜일까? 성폭력 당한 부끄러운 여성이기 때문일까? 오히려 가해자인 다윗의 이름은 올라있지 않은가? 남성중심적인 기록방식인가? 왜 성서는 굳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한 것일까? 우리야는 그의 아내를 취하고자 다윗이 세운 모략으로 전쟁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 일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책망하였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다. 그럼에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를 잃게 되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깨닫는 자에게 축복도 하신다. 그렇지만 잘못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잊지 않게도 하신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를 취하여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족보에 남기시는 것처럼 말이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눅 2:1-7)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으나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 신비스러운 일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까? 약혼자 요셉도 매우 난감해 하였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니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눅1:28-35)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였다.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 찬가(눅1:46-55)는 낮고 천하여 세상에서는 멸시함을 당하나 그들을 구하시고 자비함을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 약한 자, 낮은 자를 위해 오신다. 교만한 자를 꺽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자비를 베푸신다. 이를 믿고 의지하는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세상을 구원하러 몸소 오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

예수님의 족보는 혈연관계를 강조하는 가부장제 권력을 자랑하는 족보가 아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매우 정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관습 속에 억압당하던 형사취수제의 피해자인 다말, 외면당하던 이방 여인 룻, 성폭력의 피해자인 우리야의 아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놀림을 당하던 비천한 마리아 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높이 들어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혈연을 뛰어넘는 세상을 포용하는 뜻을 보이셨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조차도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아들과 딸로 삼겠다고 하였다. (사56:2-5)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 분의 언약을 굳게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약속하셨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실천되었다.

이제 열린 눈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볼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길 기대해 본다.

내 아이의 편안한 집이 되어주는 곳

황영주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첫돌이 지날무렵부터 복직 후 아이를 보육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육아선배가 된 친구나 언니들과 소통하면서 문촌9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을 알게 되었고 대기를 걸고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촌9사회복지관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온건 2년의 육아휴직을 마치기 1년이 남지 않은 시간쯤이었습니다. 연락오기를 기다렸던 곳이었기에 전화를 받고 망설임 없이 입소를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입소할때 채원이는 18개월이었습니다. 기저귀도 차고 있었고 혼자 숟가락질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말도 다른 아이보다 조금은 느려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아빠와 단 한번도 떨어져 지내본 적도 없던터라 어린이집 적응기간에 우리아이가 얼마나 힘들어 할지 걱정이 앞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엄마 찾으면서 울기만 하면 어쩌나 혹시라도 사사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어린이집의 일이 채원이의 일이 되는 건 아닌지 등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아이의 적응을 위해 처음에는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였고, 점차 시간을 줄여 한두시간씩 엄마와 떨어져 지내보는 과정을 한 달 가까이 진행하였습니다. 아이의 적응 상태를 살피며 엄마는 천천히 원에 있는 시간을 줄여갔습니다. 그 덕에 점차 채원이도 적응을 하면서 지냈고 어느새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 지금은 수다쟁이에 애교쟁이가 된 5살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말이 느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어린이집을 다닌지 반년도 되지 않아 어휘력은 놀랄 만큼 늘어서 한번 들은 단어는 어떤 문장에도 잘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에 지금은 엄마 밥보다 어린이집 밥이 더 맛있다며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기저귀도 떼지 못한 채원이를 이제는 혼자 대소변 마무리까지 잘하게 정말 다 키워주신 듯한 느낌이랍니다.

"우리선생님은 채원이를 너무 사랑해 줘서 나도 선생님이 너무 좋아" 라는 말과 집에서 선생님놀이를 하면서 채원이가 선생님이 되어 놀다 보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쁘게 말을 해주시고 예쁘게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보육해주시는지 알겠더라구요. 그래서 가끔씩은 원의 생활을 선생님놀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재미도 있답니다.

처음 원에 적응할 때 담임선생님 바라기가 되어 선생님이 잠시라도 눈에 안 보이면 울기에 급급했던 채원이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드셨을텐데 늘 채원이는 최고라며 엄마 같은 포근함을 주셨습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울면 같이 눈물이 나는 저를 다독여 주시며 함께 눈시울이 붉어지셨던 선생님들은 저에게 너무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늘 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곧 졸업을 하게 되는 지금도 전 정말 문촌9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이 친정엄마 같은 느낌이랍니다. 내가 해 줄 수 없는 것을 채원이에게 주었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엄마와 같은 느낌의 원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졸업을 하고 다른 유치원으로 가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쉽고 속상하기까지 합니다.

담임선생님들 모두 바쁜 업무중에서도 아이의 가장 밝고 예쁜 모습을 담아 사진과 원에서의 생활, 아이가 한 말한마디까지 놓치지 않고 알림장, 키즈노트에 적어주셨던 부분과 작은 상처에도 하원할 때 늘 알려주시는 세심함에 늘 감동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 감사함을 조금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채원이 아빠와 저는 원에서 하는 행사에는 언제든 상황이 되면 적극 참여하고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신랑 또한 원에 대한 만족도가 200%며 늘 선생님들은 위대하고 존경스럽운 분들이시라고 얘기한답니다. 특별활동도 외부견학이나 지역사회 연계 활동도 많은 우리 어린이집은 역시 최고라고 엄지척하면서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들에게 당당히 자랑할 수 있고 추천해주는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건 아이들이 우선이라는 원장님의 마인드와 사랑으로 대하는 모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채원이는 이제 몇 달 후에는 6살이 되어 더 이상 형님반이 없어 어린이집은 졸업하고 유치원을 가야 한다고 말하면 "나는 문촌 어린이집이 제일 좋아, 형님반 없어도 괜찮아 선생님 옆에서 동생반 돌봐주면서 어린이집 계속 다니고 싶어"라고 말한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 내가 아이의 첫 사회생활이 되는 어린이집 하나는 정말 잘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것이 너무 감사하고 3년간 어린이집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마음도 몸도 많이 성장한 채원이를 보며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들, 조리사님께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유치원을 가더라도 나중에 더 커서 학교를 가더라도 문촌9 어린이집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만족했고 행복했던 문촌9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대여행위

김영은
선행정사무소 행정사

안녕하세요, YWCA회원 여러분
이번 호에서는 안전하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지만,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부탁받거나 급히 요청을 받은 경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대여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소중한 내 자산을 안전하게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비교적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1 공증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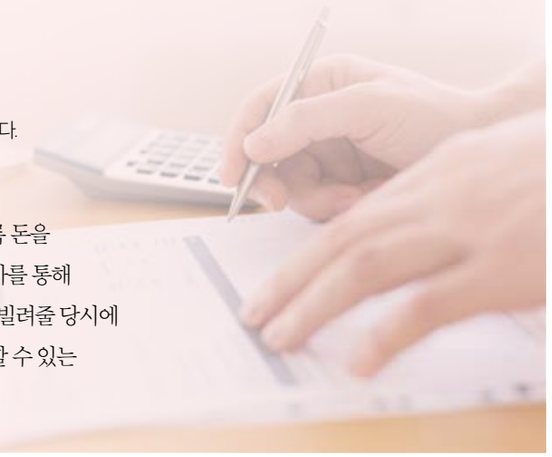
돈을 대여하면서 '공증' 사무실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방문하여 약속어음공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을 해두면, 추후에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게 되더라도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바로 상대방 명의의 모든 재산에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대여금 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변호사 선임비, 법원 실비용 등의 비용이 발생)

2 연대보증인을 세우시면 집행이 더 수월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절차를 해두는 경우라도, 돈을 빌려가는 사람 이외에 본인 명의로 재산세를 내고 있는 제3자를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다면 추후 차용인이 돈을 갚지 않더라도 보증인을 상대로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또한 무의미합니다.

3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인 명의의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근거를 남겨두세요.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차용인 명의의 재산이 있었는데, 추후에 이를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차용인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본인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임).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사해행위취소)을 통하여
그 재산을 다시 차용인 명의로 바꾸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대여하는 당시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민사든 형사든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반환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당시에
이에 대한 위험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 채권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 -'비혼주의자 마리아' 소개

왜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걸까?

남오성
주날개그늘교회 목사

책 **〈비혼주의자 마리아〉**
글·그림 안정혜 / IVP / 316p / 2019.08.12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기독교인에게 친근한 이름 '마리아' 앞에, 어색한 단어 '비혼주의자'가 붙었다. 이렇게 이 책은 익숙한 현실을 향해 낯선 질문을 던진다. 그것은 바로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만연된 남성 중심의 가부장주의 때문에 여성이 당하는 성차별에 대한 질문이다.

줄거리는 이렇다. 자매 관계인 두 여성이 있다. 동생 한나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언니 마리아는 파혼을 하고나서 비혼을 선언했다. 왜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걸까? 거기에는 차마 꺼내 놓을 수 없는 아픈 이야기가 숨어 있다. 그것은 한국 교회에 만연한 가부장적 성경해석과 여성 비하의 전통, 그리고 그 결과로 목회자가 저지른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다.

내용의 주 무대는 어느 독서토론 모임이다. 거기서 이런 대화가 오간다. 과연 가부장주의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일까, 아니면 인간 타락의 결과일까? 창세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성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된다'는데, 그건 무슨 뜻일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데, 어떤 의미일까? 교회에서 성폭력을 당하고도, 저항하지 않고 참는 것이 과연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성도의 미덕일까?

이 책은 쉽게 읽힌다. 하지만 제기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렵기만 하다. 나아가 생각을 바꾸는 건 더 어렵고, 변화를 위한 실천은 더더욱 어렵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다. 지금도 교회에서 여성들은 당연시된 남녀 지위 차별, 목회자와 성도 간의 왜곡된 위계 질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상한 방식 때문에, 여러 아픔을 당하면서도 신음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책의 결말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함께 깊은 공감과 위로 가운데 서로 힘을 모아 연대하기를 소망한다.

이 책은 만화책이다. 그렇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마치 편협한 성경해석을 빌미로 남성이 여성을 함부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다.

고양 2019 프로젝트 도시 & 여성 & 안전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 고양YWCA는 2019년 고양시 성평등기금지원사업으로 진행된 '고양 2019 프로젝트 도시&여성&안전'사업의 일환으로 9/16(월) 10시 일산동구청에서 시민, 담당공무원, 모니터링단, 시·도의원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젠더관점의 안전정책을 제안하는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14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은 고양시 19곳을 23회에 걸쳐 성별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 중 하나인 재난·재해·여성안전관련 사업분야를 현장모니터링하였고 여성안심사업분야, 생활분야, 스쿨존, 재해재난안전분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민의 눈으로 고양시 안전사업현황을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고양여성네트워크 '공감워크숍' - 지속가능한 여성의 삶, 길을 모색하다

✚ 고양YWCA는 11/19(화) 파주 지지향하우스에서 민관정이 함께 구성한 고양여성네트워크 '공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지속가능한 여성의 삶, 길을 모색하다'란 주제로 고양시 여성단체들, 공무원, 시의원 6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고양시 성주류화 추진체계에 대한 이해, 성인지 관점의 안전골든벨, 욕구강도 프로파일, 2기 여성친화도시 설계를 위한 원탁토론과정으로 진행되었다.1기 여성친화도시를 진단하고 2기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안하고 수렴하는 시간이었다.

가사자치회 가을기행

✚ 고양YWCA 가사자치회(한두레)는 10/26(토) 남이섬으로 가을기행을 다녀왔다. 일상의 단조로운 생활에서 벗어나 가을정취를 느끼며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같은 일을 하는 회원들이 모여 사례와 고충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가짜뉴스 속 진짜뉴스 읽어내기 - 미디어 리터러시교육

✚ 고양YWCA는 11/14(목), 11/21(목), 11/28(목) 3회기에 걸쳐 시민 19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디어 리터러시교육을 진행하였다.
온갖 가짜뉴스가 진실을 왜곡하면서 판단에 혼란을 주는 미디어 환경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정보를 분별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뉴스를 보는 시선을 기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고양YWCA 제 31회 정기총회

✚ 고양YWCA는 2020년 2/1(토) 오전10시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1부 개회예비를 시작으로 본회의에서는 2019년 감사 및 결산보고와 사업결과보고를 하고 2020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심의 이사공천위원 인준으로 진행한다. 고양YWCA 회원과 함께 1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계획하는 이번 정기총회에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 - 오늘은 짜장면 먹는 날~!

✚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신실)에서는 사랑의 징검다리 봉사단(단장 이수영)과 함께 '오늘은 짜장면 먹는 날'을 10/2(수)에 진행했다.
지역주민들에게 맛있는 짜장면을 대접하기 위해 사랑의 징검다리 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은 2일 이른 아침부터 복지관을 찾아 짜장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180인분의 짜장면을 준비하여 식당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짜장면을 선물해주었다. 식사를 하신 지역주민들은 "오랜만에 자장면을 먹는다", "면이 탱글탱글하고 소스가 너무 맛있다"며 자리를 마련한 봉사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봉사자들 또한 지역주민들의 감사 인사에 기뻐하였다.
사랑의 징검다리 봉사단은 짜장면 나눔 행사에 이어 '행복 플러스 사랑나눔 바자회' 복지관과 연합하여 진행했으며, 12월에는 '이웃愛 김장 나눔' 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봉사단과 복지관이 함께하여 나눔을 실천하는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주거지원시설 - 후원품 전달

✚ 지난 10/25(금) 고양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쉼터 주거지원시설에 후원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후원 물품은 쌀 400kg과 김치 200kg으로 현재 고양시 주거지원 10호에 그룹홈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20가구 주거지원 입주자에게 전달되었다. 이번 기회로 쉼터를 퇴소한 후 자립을 준비하는 어렵고 외로운 시기에 여전히 관심 가져주는 따뜻한 이웃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많은 분들로 인해 주거지원 입주자 모두가 조금은 풍요로운 겨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 2019 품앗이의 날

✚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11/15(금) 어울림한정식에서 자녀돌봄 품앗이 총 32그룹, 46가족, 123명이 참석하여 '2019년 품앗이의 날'행사를 진행하였다. 공동육아나눔터(원당, 1017부대), 경기육아나눔터(화정, 벽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자녀돌봄품앗이 회원이 참석해 2019년 활동을 영상으로 나누고 그룹별 작은발표회를 통해 준비한 공연을 펼쳤다. 문화공연으로 키즈오페라 '울려라, 소리나무'를 관람하고 우수활동 품앗이 시상을 통해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격려하였다.
2019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함께 정리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통해 자녀들의 성취감을 북돋우고 다른 품앗이 회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었다.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 현대 모터스 스튜디오 견학

✚ 어린이집 위원회에서는 지난 11/22(금) 영유아들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고양 현대 모터스 스튜디오에 다녀왔다.
한 대의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공정을 체험하며 자동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는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에어백으로 이루어진 터널에서 탑승자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에어백의 원리 및 자동차 탑승 시 지켜야 할 안전 및 규칙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
다양한 체험과 영상관람을 통해서 자동차를 보고 듣고 느끼는 즐거운 경험을 보다 쾌적하게 누릴 수 있었다.

고양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 고양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11/23(토)고양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각자의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할 시민이라는 점에서 정직하게 노동하는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이번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서 1시간 동안 간단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보드게임을 통하여 간접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며 연차, 퇴직금, 연장수당 등 실제 노동법 용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배운 내용을 토대로 피켓을 만들어 캠페인을 진행하며 노동권의 소중함을 느끼는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양YWCA 가족사랑상담소 - '자원활동가 송년모임'

✚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에서는 12/14(금)~12/15(토) 1박 2일 동안 자원활동가 송년모임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 피해여성 상담과 폭력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한 자원활동가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고양YWCA 활동가로써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상담소 개소 20주년을 맞아 20살 생일파티와 영화감상, 신입활동가 인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Y가족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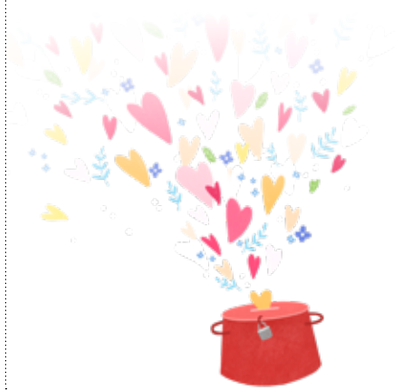
고양시여성근로자복지센터	퇴사	우경남 9.30
	입사	김지운 10.7
	부친상	김영은 10.4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	김세연 9.21
문촌9복지관	결혼	권용일 (사회복지사) 10.12
문촌9복지관 어린이집	시장상	고옥이 (모범 보육교직원 시장상) 12.3
	국회의원상	정재은 (모범 보육교직원 김현미국회의원상) 12.3

2019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생명사랑 운동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MS 회원

강금화 강남정 강동건 강민자 강보석 강수영 강순자 강안나 강영선 강영수 강은아 강정희 강종두 강준민 강지선 강진숙 강철희 강현숙 강희정 견윤창 계수정 계은영 고경남 고경촌 고선미 고성연 고옥이 고옥현 고정숙 고태준 고현준 공선애 곽경자 곽미란 곽승헌 곽창훈 구본정 구은정 구인순 구자정 세무사사무실 국순애 권경숙 권구철 권기웅 권수미 권여정 권영균 권용운 권용일 권현명 금연자 김갑훈 김 경 김 경 김경숙 김경숙 김경안 김경옥 김경자 김경화 김경희 김경희 김계환 김광명 김귀화 김규자 김기숙 김나연 김동현 김명승 김명신 김명옥 김명정 김미경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자 김미자 김미현 김미희 김민숙 김민주 김민희 김민희 김병수 김병숙 김병천 김병학 김보현 김복숙 김복숙 김분순 김석우 김선미 김선자 김설연 김성남 김성숙 김성순 김성엽 김성예 김성옥 김성헌 김세연 김세영 김세은 김소연 김수경 김수정 김순례 김시화 김신실 김신예 김아랑 김애경 김애경 김연수 김영경 김영도 김영란 김영민 김영수 김영순 김영순 김영희 김예원 김옥남 김옥순 김옥자 김옥희 김용근 김용숙 김용진 김우란 김원순 김유영 김윤조 김은경 김은순 김은아 김은영 김은정 김은정 김은혜 김은희 김은희 김이환 김인석 김인순 김인애 김일순 김자환 김재숙 김재원 김재철 김정수 김정순 김정연 김정윤 김정해 김정효 김제연 김종예 김종일 김주원 김주택 김주현 김준우 김중기 김중렬 김지선 김지수 김진승 김진아 김진원 김진호 김채환 김찬실 김채환 김춘애 김충기 김태미 김태원 김태은 김태현 김태형 김학인 김행미 김향순 김 혁 김현리 김현미 김현미 김현미 김현주 김현지 김현지 김현지 김형순 김형숙 김형재 김형진 김형채 김혜경 김혜련 김혜순 김혜정 김혜정 김호석 김홍희 김화숙 김황연 김효순 김효원 김훈혜 김휴희 김흥주 김희정 김희조 나기균 나아란 나애란 나윤옥 나종하 남궁성 남궁혜경 남상우 남윤숙 남이안 노미화 노 진 도순금 동방현주 류순애 명연옥 모지영 문복희 문정인 문정인 문정자 문종미 문춘순 문희경 문희숙 민경미 민경숙 민은식 민정미 민정자 민혜경 박가원 박경선 박경화 박광애 박귀영 박금련 박금옥 박금옥 박금화 박기복 박남순 박범용 박병준 박상근 박상호 박상희 박서정 박선영 박성옥 박성희 박소영 박수지 박순옥 박순철 박순혜 박순화 박승미 박승희 박신애 박양숙 박영배 박영신 박영희 박용준 박윤정 박윤희 박은경 박은주 박은희 박인숙 박점례 박정구 박정돈 박정수 박정숙 박정언 박종권 박종문 박종미 박종민 박종숙 박종임 박주경 박주휘 박지영 박지현 박진남 박진남 박진우 박진찬 박진현 박해동 박해숙 박현경 박현정 박현희 박혜선 박홍규 반정인 반준우 방기심 방신헌 방지연 방현숙 배맹숙 배민희 배서현 배연희 배정연 백수정 백수정 백형자 백희정 변창호 비단과향신료 빈상곤 서동철 서순이 서순자 서연주 서영민 서영애 서영호 서옥경 석병준 석영근 석은주 석진호 선창민 성경자 성곡숙 성조현 성화스님 소경희 손경연 손미나 손미나 손행덕 손혜원 손희경 송계화 송명숙 송미숙 송미화 송영미 송영애 송이섭 송인옥 송인자 송재율 송주명 신규갑 신남철 신남희 신동란 신동욱 신두호 신문식 신미화 신선우 신선혜 신승철 신영란 신우섭 신우익 신은심 신은영 신인선 신재희 신정현 신현정 심미숙 심석보 심수연 심하진 심형창 심홍순 안명숙 안미숙 안복희 안석민 안성민 안은선 안인숙 안재홍 안지원 안지현 안진희 안춘미 안현숙 안현숙 양나은 양상국 양승례 양애숙 양원태 양윤선 양인순 엄태용 연영진 오기백 오다혜 오수경 오수자 오수정 오수현 오우영 오종택 오창훈 오현화 오현희 오형근 왕애리 우상유 원용열 원정환 유경옥 유미영 유보라 유새아라 유애희 유용상 유윤석 유철훈 유현선 유호심 유효경 윤경희 윤길용 윤덕필 윤문식 윤병선 윤보현 윤선주 윤소연 윤애숙 윤영균 윤영옥 윤인숙 윤정국 윤정숙 윤정애 윤주영 윤준구 윤희도 이가연 이강석 이강욱 이건희 이경애 이경혜 이광수 이금수 이금순 이나연 이대성 이동윤 이동호 이두은 이명순 이명윤 이명재 이명화 이미순 이미애 이미영 이미영 이미지 이미화 이민정 이민주 이백채 이복례 이봉운 이상민 이상수 이상희 이선순 이선아 이성훈 이수연 이수자 이수정 이수진 이수희 이숙자 이승미 이승원 이승환 이신애 이영남 이영미 이영심 이영애 이영주 이영철 이영표 이영희 이예은 이용혜 이우열 이우진 이원희 이윤령 이윤승 이윤식 이윤주 이은경 이은미 이은미 이은선 이은영 이은자 이은지 이은희 이의환 이인숙 이재기 이재열 이재은 이정민 이정선 이종대 이종례 이종열 이주기 이주연 이준호 이지선 이지선 이지연 이지옥 이지은 이 진 이진경 이진희 이찬희 이창열 이춘자 이태형 이해숙 이해원 이해원 이현숙 이현주 이현지 이혜경 이혜영 이홍근 이화용 이효정 이희란 이희재 임미란 임상원 임소라 임수경 임수현 임수희 임은선 임은이 임재경 임현서 임홍선 장길수 장 미 장상화 장선심 장순설 장순일 장승철 장여백 장여운 장영진 장인경 장인남 장정옥 장혜교 장희진 전경숙 전민자 전선윤 전성원 전성혜 전수경 전순택 전승희 전영철 전옥희 전은국 전정옥 전지연 전철자 전철호 전현경 전현민 전혜림 전혜숙 정경례 정경옥 정경화 정구상 정기현 정기훈 정동기 정동인 정득화 정만진 정미영 정미영 정미자 정상화 정선미 정선우 정선희 정선희 정성래 정성순 정수빈 정수아 정순창 정신애 정여진 정영관 정영석 정영한 정웅환 정원대 정원재 정유정 정윤식 정은선 정의광 정재은 정태숙 정판오 정필재 정현영 정현우 정현주 정형심 정혜정 정효숙 조경오 조미경 조민서 조성환 조소리 조승석 조안순 조애진 조영곤 조영숙 조용준 조윤성 조은경 조은서 조은영 조은자 조 정 조진완 조현경 조현미 조현주 조희진 주선희 주수연 지순정 (주)에스트론 지에이에스디(주) 진상기 진의연 진재수 진태을 천승원 천정인 최경숙 최난경 최문희 최미점 최민기 최상영 최선영 최선호 최성연 최성진 최숙정 최영임 최옥명 최옥향 최유경 최윤하 최은정 최은주 최인숙 최자현 최정순 최정열 최종순 최준식 최지우 최지현 최지현 최진옥 최진원 최해옥 최향숙 최현아 최흥숙 하미화 하연화 하영리 한경희 한금식 한 대현 한명규 한명선 한명숙 한명호 한미경 한보희 한상민 한상아 한선희 한성안 한성옥 한송이 한수아 한숙원 한정수 한희철 함윤수 함윤희 허공균 호광여 홍경운 홍기표 홍대식 홍성진 홍성철 홍순애 홍영심 홍우정 홍윤옥 홍윤주 홍인선 홍정임 홍찬영 홍효기 홍효식 황경숙 황상희 황선옥 황성용 황소영 황아영 황영은 황윤옥 황은영 황인선 황정원 황지애 황태성 황혜숙 황혜영 황혜영 황혜정 황화선



일반 회원

강미선 권향숙 김미경 김수운 김지운 문윤주 손소현 이옥연 임영애

평생 회원

김정순 유용상 이유나 임정화

특별 후원

강영선 고양시관광컨벤션협회 고양시공무원 노동조합 고양평화누리 고양YWCA이사회 김갑훈 김금숙 김용주 김춘애 문희숙 박진남 보성환경 서부보육사 승리교회 아가월드 예수승리교회 윤정애 여상준 연임순 원혜진 유재덕 이만종 이영진 이윤주 이 현 장길수 정경숙 정선미 정옥기 쨈잼이벤트 진의연 최규식 최숙영 최영임 최지현 한두레자치회 흰돌종합사회복지관

특별 후원

30주년 기념 특별후원

고옥이 고양YWCA이사회 광명YWCA 경기지역 위원회 김나연 김신실 김용주 김춘애 남궁혜경 남양주YWCA 박귀영 박선영 서울YWCA 성남YWCA 송미령 수원YWCA 안산YWCA 안양YWCA 여성단체협의회 윤윤희 윤정애 이경애 이혜경 의정부YWCA 전지연 진의연 파주건강가정지원센터 파주YWCA 한국YWCA한영수 환경운동연합 황혜숙

물품 후원

개인 · 단체

감초한의원 고양낙농치즈테마체험장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고원니트 김경애 김애경 농협하나로유통센터 다원물산 뚜레반 라홍디엔씨 뚜레쥬르원당점 롯데아울렛고양터미널점 문소연 문희경 바른손 박진현 빵굽는 작은마을 손두부체험카페 씨디에프텍스타일 안은순 올레떡집 이원영 이주영 임영채 임필남 (주)아이비전 쥬얼파크 팔피엠 WAXIE 코이노니아 (주)킨텍스 한국화훼농협 형제식품

당신의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고양YWCA는 비젼을 품고 앞으로 나가는 젊은 운동체
사회참여과 지위 향상에 앞장서는 여성운동체
사회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기독운동체
건강한 공동체 세상을 만드는 회원운동체입니다.

당신이 후원한 회비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생명운동과 청소년 평화운동에 사용됩니다.
여성지도력 양성에 사용됩니다.
회원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사용됩니다.
제3세계 여성과 아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회비안내

- ✚ **CMS(자동이체)회원** - 월1만원이상
- ✚ **일반회원** - 연3만원
- ✚ **어린이회원**·연5천원
- ✚ **평생회원** - 100만원
- ✚ **특별회원** - 10만원이상
- ✚ **Y틴회원** - 연5천원

후원안내

- ✚ **물품후원** - 후원해 주시면 작은물품도 소중하게 받겠습니다.
- ✚ **재능기부도 받습니다.**

회원가입 및 후원문의

✚ **살림운영위원회** 031-919 -4040

명단에 누락되었거나 주소, 연락처가 바뀌신 회원님은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293-01-0002-640** (예금주 고양YWCA)

고양YWCA 가사도우미

●부족한 일손을 도와드립니다.
상담 및 접수시간 평일 오전 9:30 ~ 오후 5:30 (최소한 1달 전에 예약)

구분	평수	금액	추가요금
반나절 09:00~13:00 14:00~18:00	~39평	48,000	◑ 1만원 추가의 경우 • 단회성(격주포함) • 반찬서비스 • 시간추가(1시간만가능) • 음식추가 ·반려동물 ◑ 일요일,공휴일 1.5배
	40~59평	53,000	
	60평~	60,000	
종일(8시간) 09:00~17:00 (중식제공)	~39평	80,000	• 중식별도제공(일7천원) • 80평 이상은 협의 후 • 일요일,공휴일 1.5배
	40~59평	90,000	
	60평~	100,000	

●가사도우미 교육 :
매월 셋째주 목요일 09:30~12:00

문의전화
☎ 031)919-4040

고양YWCA 생활방사능 라돈 측정기
'라돈 아이' 대여서비스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침묵의 살인자 생활방사능 라돈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

"무색·무취한 특성 탓에 아직 국내에는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게 문제"

- 서울대 의과대학 강건욱 교수 -

고양YWCA는 고양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라돈측정기 '라돈아이'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여기간 2박 3일
대여금액 5,000원 + 보증금 50,000원 (라돈아이 반납 후 보증금 반환)
대여방법 고양YWCA 전화 상담 후 기관 방문하여 수령
전 화 031-919-4040 고양YWCA

문촌9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원아모집

♡ 아이와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 ♡

모집대상 **만0세**(2반-6명) 2019. 01. 01 ~ 2019. 12. 31 출생 영아
만1세(2반-0명) 2018. 01. 01 ~ 2018. 12. 31 출생 영아
만2세(2반-14명) 2017. 01. 01 ~ 2017. 12. 31 출생 영아
만3세(1반-15명) 2016. 01. 01 ~ 2016. 12. 31 출생 유아
운영시간 오전 07:30분 ~ 오후 07시30분
교육내용 표준보육과정 & 누리과정 운영
유기농 급간식 제공(생협)
영양 & 안전교육
열린어린이집 운영
나눔 프로젝트(북한어린이돕기, 독거노인 난방비 돕기)
매월 2회 외부견학프로그램
코엔코 뮤직, 키즈체육, 영어프로그램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156, 문촌9단지내 복지관1층 ☎ 031)917-1003

제31회 고양YWCA 정기총회

YWCA는 사람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0년 2월 1일(토) 오전 10시
장소 문촌9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문의 031-919-4040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5층)